

초점

아내 중상 입힌 폭력남편 검찰이 영장 기각

“집안일” 이유, 전치 4개월 진단 피해자 지금도 정상 생활 못해

아내의 친절 드나들기, 머느리 역할 소홀, 장모 섬기기 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판례가 속출하면서 사법부의 보수 회귀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4개월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나오는 등 피해사실이 심각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사안이 ‘부부싸움’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신청을 기각해 법상식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디자인사로 일했던 피해자 강모(28)씨가 동거인 남편 이모(33)씨로부터 15시간 이상 구타를 당한 것은 지난 5월 28일, 전치 4개월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받고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강씨는 지난 8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남편 이씨를 고소하고 사실혼 파기에 따른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강씨의 머리를 쳤다는 것. 그 뒤 식칼을 휘두르다가 벽돌을 주워와 ‘죽여버리겠다’며 ‘차를 팔면 얼마냐, 가게는 얼마냐, 통장 가져와라’고 소리를

이씨는 여기까지 찾아와 손가락을 자르는 자해행위를 하는 등 집안을 공포분위기에 몰아넣었다고 한다. 이후 계속 이씨가 강씨를 찾으러 오는 과정에서 강씨의 오빠까지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강씨는 한국병원과 고려정신병원에서 전치 2개월 상해진단서와 2개월간의 정신신경치료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심한 우울증, 신경통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의 고소로 남편 이씨가 잠적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씨가

검거된 10월말 비로소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배금자변호사에 따르면 “검사와 피해자, 가해자 면담과정에서 검사측이 피해자의 혼전 남자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등 이번 사건이 폭력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고, 특히 다른 증인의 진술내용과 다르다며 무고죄를 주지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며 “상식적으로 4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왔고, 가해자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배변호사는 덧붙여 이런 현실이 결국 “아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며 “가정폭력이 묵인되고 ‘치외법권지대’로 되어있는 한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청의 박모검사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일축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이들은 한결같이 남성폭력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꼬집고, 여성에게 항상 문제가 있다는 식의 ‘피해자 원인론’이 아직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가정폭력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순정미 기자)

오히려 피해자 과거 이성관계 집중 추궁해 사건 본질 흐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시급

강씨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경 남편 이씨가 성동구 금호동 소재 동거방(이들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유리 깔린 교탁상을 박살낸 다음 유리를 들어

치다가, 강씨가 ‘통장은 엄마에게 맡겼다’로 하자, 그때부터 새벽까지 15시간 이상 실신할 때까지 구타를 했다는 것이다.

새벽에 정신이 든 강씨는 친정을 찾아와 절로 피신했는데,